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3월 30일(수), 오후 2~4시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일제강점기 북한 지역 불교문화재 조사 경향-

권 강 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일제강점기 북한 지역 불교문화재 조사 경향-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1) 경기도

경기도 개성은 고려의 도읍인 개경에 해당하는 곳으로 고려 창건을 비롯하여 고려 왕실과 관련된 중요 사찰이 밀집된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 조사 당시 미륵사지, 적조사지, 귀법사지, 영통사지, 오룡사지, 연복사지, 현화사지 등 이미 폐사된 채 석조미술품만 남아 있는 사찰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촬영된 사찰 관련 유리건판 매수는 현화사지 33장, 영통사지 30장, 불일사지 18장, 흥왕사지 17장, 연복사지·오룡사지·화장사 각 12장 등으로 확인된다. 석탑, 승탑, 석비 등 석조미술품을 촬영한 유리건판이 대부분이지만, 장단의 화장사에서는 지공화상상, 지공·나옹·무학의 삼화상도, 지공탑 등 지공화상과 관련된 작품이 주로 촬영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개성 지역은 1910년과 1911년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를 주축으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가 연복사지, 영통사지, 현화사지 등에 남아있는 석조미술품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1916년에는 한강 유역 한대漢代 유적 탐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마니시 류(今西龍)팀이 귀법사지, 오룡사지, 흥국사지 등의 석조미술품을 조사하고 장단 화장사의 칠층석탑과 지공화상상, 공민왕 영정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유리건판을 보관한 격납상자에 1917년으로 기록된 개성 관음사 대웅전과 오룡사지 법경대사탑비, 장단 화장사의 대웅전과 지공탑, 지공화상상 등을 촬영한 자료가 남아 있다. 1918년에는 야쓰이 세이이치와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가 봉산·개성·장단지역 조사의 일환으로 장단 불일사지의 오층석탑과 석조계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경기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1939년에 이루어졌다. 1939년의 조사자는 알 수 없으나 개성 영통사지, 오룡사지, 현화사지 등과 장단 불일사지의

석조미술품에 대한 세부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개성부립박물관에 전시된 흥국사지 석탑과 미륵사지 석불입상, 적조사지 철불좌상, 개국사지 석등 등의 조사·촬영을 병행하였다.

2) 황해도

황해도는 북한 지역에서 불교문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황주 성불사를 무려 136장이나 촬영(1909년, 1927년, 1930년, 1934년, 1937년)하였으며, 그 외 심원사 47장, 신광사 19장, 패엽사 15장 등을 촬영하였다. 성불사는 응진전과 극락전의 보수 및 수리 관련 세부 사진이 대다수이며 심원사는 보광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였다. 신광사는 사찰 전반을 골고루 촬영하였으며 패엽사는 주불전인 한산보전寒山寶殿을 위주로 촬영하였다.

황해도 지역 주요 사찰에 대한 조사는 1909년부터 1938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리건판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세키노 다다시탐은 1909년에 황주 성불사의 극락전과 응진전, 청풍루 등 건축물 조사를 시작으로 1911년 봉산 상탑동 삼층석탑, 1913년에는 해주 광조사지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와 신광사 보광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1916년에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팀 또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팀이 금천 영파리 석조보살입상과 은율 흥문리 석탑 등을 조사한 것으로 여겨 진다. 1917년에는 야쓰이 세이이치팀이 봉산 고산사 삼층석탑과 대웅전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27년에는 성불사 조사를 두 번째로 실시하고 신천 패엽사를 답사하였다. 한편 황해도 지역 고적조사 전반은 오다 쇼고(小田省棼)와 노모리 겐(野守建)이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당시 조사 기록은 1929년 「황해도 8군 고적조사」(조선총독부박물관 복명서), 1930년 「황해도 봉산, 평백, 연백, 풍천, 신천 일반 고적조사」(조선총독부

박물관 복명서)에 정리되어 있다.

1929년에는 해주 광조사지와 신광사, 그 외 해주 지역의 다라니석당과 구층 석탑 등을 조사하고, 장연 학림사, 송화 탑평리 오층석탑, 신천 자혜사·패엽사·온천리와 사직리의 석조미술품 조사, 안악 연등사, 은율 원정사, 정곡사, 홍문리 석탑 등을 조사하였다. 1930년에는 재령 묘음사, 연백 강서사, 봉산 고산사와 상탑동 석탑을 비롯해 황주 성불사, 금천 문수암 및 토산리 폐사지 석탑, 황주 심원사 보광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황해도 8군 고적 조사 및 봉산·평산·연백 고적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해주 광조사지와 신광사, 연백 강서사, 금천 문수암, 장연 학림사, 성화 수증사, 봉산 고산사, 신천 자혜사·패엽사, 안악 연등사, 황주 성불사·심원사, 은율 원정사·정곡사 등 수많은 불교문화재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3) 평안도

평안남도의 평양과 대동 지역에는 영명사 팔각구층석탑, 광법사 팔각오층석탑, 율리사지 팔각오층석탑, 홍복사지 육각칠층석탑 등 다각다층석탑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이 특징이다. 북한 지역 다각다층석탑은 평안북도 영변 보현사 팔각십삼층석탑에서도 확인된다. 평안남도의 사찰 촬영은 평양의 영명사 9장, 홍복사지 5장 및 순천 안국사 6장, 성천 정진사 5장 등의 유리건판이 확인된다.

이 지역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1909년 10월 10일 세키노 다다시와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마 슌이치가 평양 건축물 조사의 일환으로 영명사 함풍 9년명탑과 홍복사지 육각칠층석탑을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홍복사지 육각칠층석탑은 1910년 다시 답사하였고, 1911년 10월 8일에는 대동 율리사지 팔각오층석탑과 성천 정진사를 조사하였다. 1913년에는 역시 세키노 다다시

팀이 용강 신덕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조사하였다.

1916년에는 세키노 다다시팀이 다시 대동 중흥사지와 용강 두릅산 석조보살입상 등을 조사하고 도리이 류조(鳥居龍藏)팀이 성천 자복사지 오층석탑을 조사하였다. 1922년에는 세키노 다다시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등이 영명사 팔각오층석탑과 팔각석불감 및 흥복사지 육각칠층석탑을 다시 방문하였고 이 내용은 「평양, 봉산 및 영흥, 북청 남문 조사 복명서」(조선총독부박물관 복명서)로 정리되어 있다. 이어 1927년에는 평원 법흥사 조사전과 극락전 대웅전 건축물을 조사하고 영명사를 1909년, 19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하였다.

평안북도는 영변 묘향산 보현사를 중심으로 주변 사찰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현사는 무려 40장을 촬영하였다. 묘향산 지역의 사찰 조사는 1909년부터 1927년까지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키노 다다시팀의 고적조사 첫해인 1909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보현사를 비롯, 부속 암자인 불영암과 상원암, 서운사, 천주사 등의 건축물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16년에는 구로이타 가쓰미팀이 용천의 다라니석당과 비사문천·공작명왕상, 도리이 류조팀이 성천의 자복사지 오층석탑을 조사하였다. 1927년에는 묘향산 지역의 보현사와 안심사를 두 번째로 조사·촬영하였다.

4) 강원도

강원도 금강산 지역의 사찰은 북한 지역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다. 금강산 지역 사찰 중 유리건판 매수는 유점사가 146장, 장안사가 84장으로 가장 많다. 유점사는 1935년 능인보전의 53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불상의 정면, 측면, 뒷면 등 세부를 많이 촬영하였고, 장안사는 대웅보전과 사성전의

수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금강산 내 사찰과 유물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12년 세키노 다다시가 주도하였다. 이때에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마하연암, 유점사, 신계사, 건봉사 등 금강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사진 촬영이 병행되었고 『고고학잡지』 3-5(1913.1)와 『조선고적조사약보고』(1914.9)에 조사 내용의 일부가 간략히 소개되었으며 이후 『조선고적도보』 5권, 7권, 12권, 13권에 이를 정리·발간하였다. 그 뒤 1919년과 1929년에 유점사 능인보전에 안치된 53불과 기타 사찰 문화재에 대한 간단한 조사와 촬영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나카요시 이사오(中吉功)의 「유점사소금동불」(『고고학』 9-9, 1938)로 발표되었다. 본격적인 유점사 53불의 조사는 1935년 사와 슌이치(澤俊一), 가야모토 가메지로(樞本龜次郎)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각 불상들의 제작 시기와 간단한 양식 분류도 시도하였다. 이 조사는 「금강산 유점사 신라, 고려불 조사 복명서」(조선 총독부박물관 복명서)로 정리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점사 53불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금강산 유적에 대한 마지막 조사는 1941년 장안사 사성전을 촬영하면서 이루어졌다. 사성전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진행된 수리공사 도중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5) 함경도

함경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문화재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함흥의 귀주사와 안변 석왕사 등 태조 이성계와 관련한 사찰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촬영된 사찰은 안변 석왕사로 47장의 사진이 남아있으며, 다음으로는 13장이 찍힌 고원 양천사, 함흥 귀주사 9장 순서이다. 석왕사는 응진전의 내부와 외부, 양천사는 대웅전과 만세루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였다. 귀주사는 1913년, 1918년, 1929년의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1913년에는 범종을, 1918년에는 사찰 전경과 독서당, 1929년에는 다시 사찰 전경과 대웅전을 조사·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함경도 불교문화재 조사는 1911년부터 1929년까지 실시하였다. 이 지역은 도리이 류조팀이 사료조사 차원으로 1911년 고원 양천사, 성진 탑평리사지, 1912년 중성 곡천사를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촬영은 이노우에 다츠조(井上達三)가 담당하였다. 이후 1913년에는 세키노 다다시팀의 고적조사 일환으로 함흥 귀주사, 고원 양천사, 신흥 개심사, 안변 석왕사를 조사하였으며, 1918년에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팀이 함흥 귀주사의 독서당 등을 조사하였다. 함경도의 마지막 조사 연도인 1929년에는 오다 쇼고(小田省吾)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이원 복흥사의 건축물을 조사하였는데 촬영 역시 후지타 료사쿠가 실시하였다. 같은 시기에 조사한 함흥 귀주사와 안변 석왕사의 조사자는 확실치 않으나, 이 시기 귀주사는 대웅전을 조사·촬영했으며 석왕사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응진전 외에 산문, 일주문, 조계문, 범종루 등의 다른 건축물을 조사·촬영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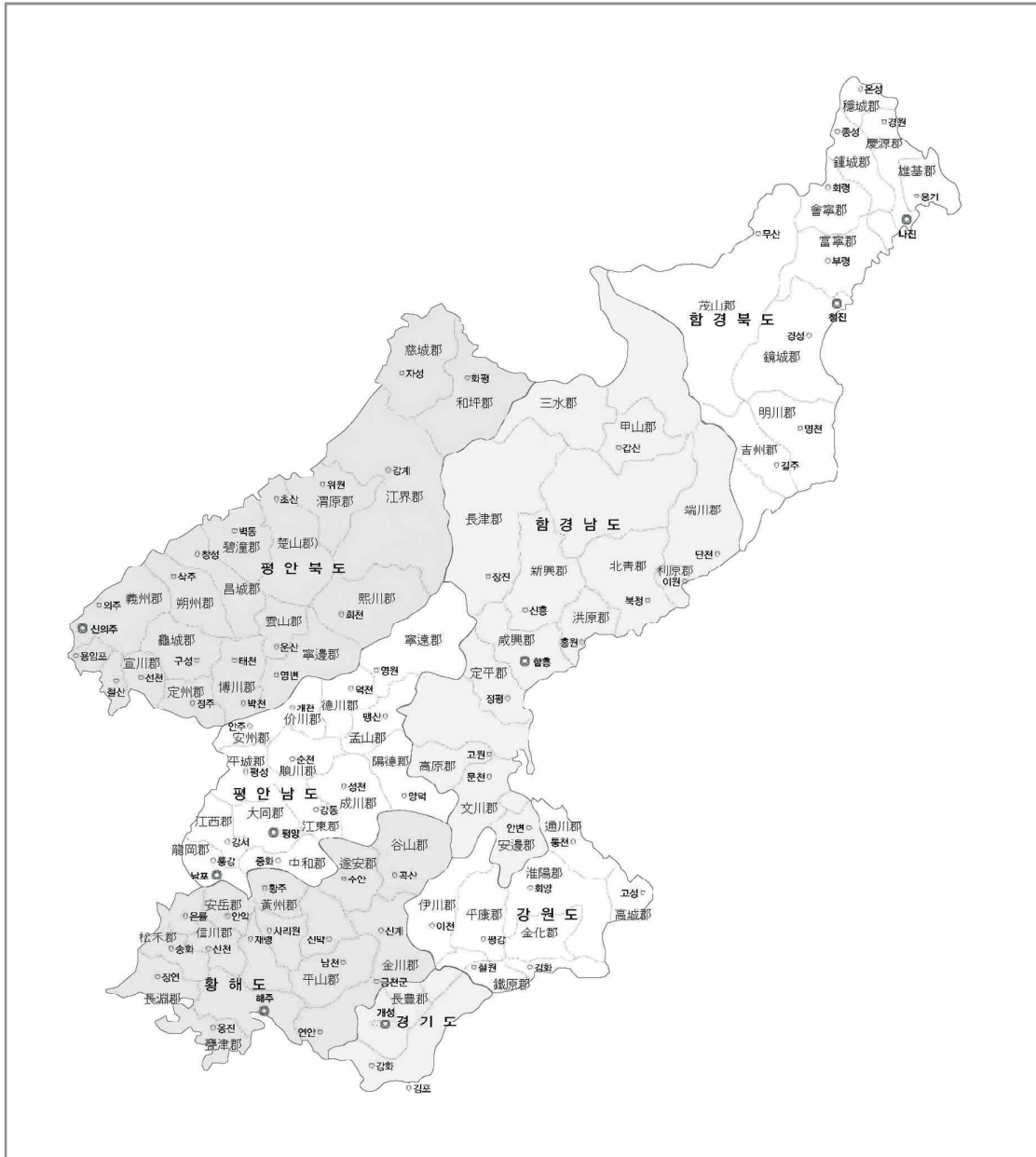


그림1. 광복 이전 북한 행정구역 지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1	3.2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	3.30.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3	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김영민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4	4.20.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장은정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5	4.27.	신라 고적조사사업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6	5.4.	가야 고적조사사업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7	5.11.	낙랑, 고구려 고적조사사업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8	5.18.	백제 고적조사사업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9	5.25.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황은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0	6.1.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11	6.8.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12	6.15.	답사(백제문화권)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3	6.22.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